

B-12 골내 치주낭에서 동종 탈회냉동건조골 이식시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김성희* · 김종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질환으로 인해 상실된 치주조직의 재생을 위해 이용되는 골이식재의 치료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탈회냉동건조골을 사용하여 술후 6개월간 치료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27명의 만성치주염으로 진단된 환자의 47개의 골내낭을 대상으로 치은박리수술을 시행한 24개의 골내낭을 대조군으로, 탈회냉동건조골을 이식한 23개의 골내낭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였다.

술전과 술후 6개월후의 치료효과를 치주낭 탐침깊이, 부착상실, 탐침골 깊이, 치은 퇴축의 변화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주낭 탐침깊이의 변화는 대조군($2.75 \pm 0.99\text{mm}$)과 실험군($3.69 \pm 0.97\text{mm}$) 모두 술후 6개월후에 유의성있는 감소를 보였다($p < 0.01$).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유의성있는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 ($p < 0.01$)
2. 부착상실의 변화는 대조군($1.71 \pm 1.08\text{mm}$)과 실험군($2.70 \pm 1.55\text{mm}$) 모두 술후 6개월에 유의성있는 감소를 보였으며($p < 0.01$),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는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 ($p < 0.05$)
3. 탐침골 깊이의 변화는 대조군($1.08 \pm 0.97\text{mm}$)과 실험군($4.00 \pm 1.41\text{mm}$) 모두 술후 6개월에 유의성있는 감소를 보였으며($p < 0.01$),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유의성있는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 ($p < 0.01$)
4. 치은퇴축의 변화는 대조군($1.21 \pm .72\text{mm}$), 실험군($1.00 \pm 1.09\text{mm}$) 모두 술후 6개월에 유의성있는 증가를 보였다. ($p < 0.01$)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유의성있는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치조골 골내낭의 치료시 사용되는 탈회냉동건조골 동종 이식술은 골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주낭 깊이의 감소, 부착상실의 감소 및 치주낭 탐침깊이의 감소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으므로 탈회냉동건조골은 치주조직의 재생을 위한 효과적인 골이식재로 사료된다.